

SM, 96년 시황도 불투명...

바닥권 탈출수준 머물 듯 ... 북미 98년이후로 증설 연기

95년말 기준 미국 SM가격이 바닥권에 돌입한채 마감했다.

북미는 12월 SM 스파트가격을 파운드당 2센트 인하해 공시했으나 계약가격은 12월말 및 1월 첫째 주에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초 SM 계약가격은 95년9월 중순보다 4센트 떨어진 파운드당 47~48센트에 마무리되었으며, 11월 계약가격은 파운드당 33~36센트, 스파트가격은 25센트전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구매의 단기간 희생이후 다시 구매가 중단된 것이 12월 SM가격을 바닥권에 진입시킨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미지역에서의 SM가격은 바닥권에 돌입했으며 스파트가격과 계약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내수정체는 물론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위축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와 아시아의 SM 생산기업들은 1월 SM 계약가격이 파운드당 30센트이하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MAI에 따르면, 96년 SM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95년초의 폭등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국이 계속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10%이상으로 늘어나 북미 SM기업의 가동률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95년 상반기 증설을 검토했던 북미의 SM기업들은 극동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증설과 관련해 당초 증설계획을 보류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96년 완공 예정이던 공장들의 완공시기를 98년 또는 99년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증설 규모는 한국을 포함해 98년말기준 17억파운드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일본기업의 디보틀넥킹을 비롯 중국·인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대만·타이·싱가폴 등에 건설되는 공장을 포함하면 아시아지역의 총 생산능력은 98년기준 61억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95년 3/4분기 생산량은 27억9000만파운드로 공칭능력기준 96%의 가동률을 보였다. 이는 2/4분기의 생산량인 30억9000만파운드에 미치지 못한 실적이다.

National Petroleum Refiners Association에 따르면, 95년 3/4분기의 재고량은 91만7000파운드로 이는 1/4분기대비 60%이상 증가한 것이며 2/4분기대비 15%이상 늘어난 것이다.

<화학저널 1996/2/5>

